

I-5. 부착치은의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Free gingival graft 와 Strip gingival autograft 와의 술식 비교

췌병국, 홍기석, 임성빈, 정진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착치은의 양에 대해서는 여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Corn, Lang & Löe는 2mm 이상의 부착치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Dorfman 등은 부착치은이 1mm 이하이더라도 치은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고했다.

치은치조점막수술의 이론적 근거는 치주조직의 건강이 유지되는 데에 최소한의 부착치은의 폭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치은에 염증이 계속 존재하고 환자의 구강 청결이 어려운 경우와, 좁은 부착치은이 있는 치아에 치은연하변연이 필요한 치과수복을 해주어야 할 때는, 그리고 임플란트에서는 주변조직이 보통치아의 치주조직보다 염증에 더 취약해서 과도한 치태침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치은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부착치은의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는 Free gingival graft, Free connective tissue graft, Apically positioned flap이 대표적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를 변형한 accordion technique, Strip gingival autograft등의 방법이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부착치은의 폭이 매우 좁은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명은 Free gingival graft를 나머지 두 명은 Strip gingival autograft를 시행하여, 수술 전과 수술 약 6개월 후의 결과를 임상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수술을 받은 4명의 환자 모두에게서 평균 3mm 이상의 부착치은 폭경 증대를 관찰할 수 있었고, 술 후 6개월 후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결론

이상의 증례에서 부착치은 폭경의 증가를 위해 Free gingival graft나 Strip gingival autograft 모두 유용한 술식임이 입증되었고, 증가된 부착치은의 안정성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donor site 부위의 치유 기간 동안 환자가 느끼는 동통은 Strip gingival autograft가 훨씬 적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